박병동 목사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드립니다.

그 동안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가족과
저희 농아신학교 및 농아 신학생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정성껏 후원하고 지원해주셔서 농아신학교 운영에 어려움 없이 신학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작년 8 월부터 콜롬비아 보고타(수도)에서 농아인들을 위하여 신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적 같은 일이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농아 신학생들은 열심히 출석하며 열심히 신학강의를 듣고 있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활동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농아 신학생수는 10-15 명 정도 있습니다. 수업은 월 – 금 오후 7 시부터 9 시 30 분까지 진행되며 주일엔 오전 10 시부터 12 시까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 수업은
월요일:창세기 강해
화요일:마태복음 강해(그 뒤에 사무엘 강해 예정)
수요일:요한계시록 강해(얼마 전 다니엘 강의가 끝났음)
목요일:사도행전 강해
금요일:목회론, 교회론, 기타(세미나)

토요일은 시간과 여건이 될 때마다 보고타 주변지방에 내려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의 오토바이를 함께 타거나 버스를 이용하여 지방으로 이동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많은 농아인들의 방문 요청이 많아서 가는데 교통수단에 불편함이 있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나 경제적으로나 현지 사정이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를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곳이 위험하기도 하고 버스는 노선이 제한되어 있어 시골에 가기가 쉽지 않고 또한 운행을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힘든 점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곳은 앞으로는 많은 현지 청년 교역자가 생겨나 콜롬비아의 농아인들과 또한 중남미 농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콜롬비아는 한국보다 3 배가 크며 농아인 수에 비해 농아 교회가 매우 부족하고 또한 교역자도 많이 부족합니다. 전국에 많은 농아인들이 예수그리스도에 대해 모르고 있고 복음도 듣지 못하여 그들의 영혼 구원의 필요성을 매우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 드립니다.

처음 신학 강의가 시작 되었을 때 농아신학생들이 신학내용을 잘 모르고 이해하기 힘들어 하였지만 점점 깨달아 이해하고 있고 성경전체를 깊게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돌아가며 주일 설교를 맡겨 설교를 하도록 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농아 신학생들을 콜롬비아 전국에 각지에 있는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팀을 짜서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학생들도 좋은 경험이었고 현장에서 많이 배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 국내 선교에 들었던 교통비와 숙박비 등은 보내주신 후원금에서도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후원에 진심으로 늘 항상 감사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귀 교회와 모든 가정, 사역에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농아 신학생들이 앞으로 주님의 귀한 교역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2.강의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학생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3.지방 사역에 필요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4. 사역하는 제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김정철 목사 드림